

건강 칼럼

농부의 삶과 내 고향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사랑이 넘치는 달이다. 사랑하는 처와 자녀, 부모형제, 일가친척 등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보고 싶은 계절이다. 그런데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고향 장수를 갈 때면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을 가린다. 장수하면 첫째 부모님 생각, 둘째 우리집안을 일으킨 형과 형제 생각 먼저 떠오른 것이 사실인데, 작년 추석연휴부터 형제서 위암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하다가 집에서 휴양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 기도를 통해 쾌유를 희망하고 있는 중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장수 천천면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워 격정 없는 집안을 이루시기 위해 상급학교도 진학도 않으며 잠시도 고향을 떠나 살아 본 적 없이 살았고, 마음 놓고 일손을 멈추고 여행을 다니지도 못하면서, 농사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온 형이 청천벽력과 같은 병



김 양 옥 재전 장수군 천천면향우회장 전주교육대학교교원교수

으로 누워 계시니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앞으로도 80년 이상 좋은 세상에서 인생을 보내셔야 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앞을 가린다. 형의 인내와 똥심으로 좋은 의술로 몇 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긍정의 마음을 먹는다. 소박한 형의 꿈은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병은 너무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인생은 태어나 언젠가는 돌아가지만 지금의 형은 너무나 빠르고 야

속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매일 매일 참참한 마음으로 이 동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필자는 가끔 동네 앞을 지나면서 도 부모님, 형제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전화하여 "형! 어디에" 하면 "나 비닐하우스여"하면서 농가소득에 평생을 보낸 내 사랑하는 형에게 안부를 전했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나니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 형이 병원에 누워있고 활동하기 좋아

하던 형이 집에서 누워있기에 나는 즐겁지 않고 왜 매일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야 하는지..... 또한, 내 고향 장수는 충절의 고향이요, 청정지역의 관광명소가 있는 고장이며 개인농가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지만 형과 같이 부모형제를 사랑하고 장수를 사랑하는 가난과 싸워 이겨낸 장수 토박이 군민들의 노력에서 더욱 살기 좋은 내 고향이 되었다고 자긍심을 가져보며 형을 존경한다.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부터 농민들의 의식개혁으로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듯이 장수 지킴이인 형과 같은 농민들이 있었기에 농가소득이 높은 오늘의 장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세월 고생 많이 하신 형의 세대들이 의료 복지혜택이 좋아져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한다.

독자제언

이륜자동차 안전모,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위반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5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종종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다니거나,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턱끈을 잠그지 않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혹은 4배 이상까지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률은 고작 70%에 그치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99%, 독일 97%에 비해 아주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로 교통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늘고 있다.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사고당시 충격당한 머리의 부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날아가고, 사람은 공중에 떠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머리, 목 부

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안전모의 착용이 부상의 심각 도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이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었을 때보다 치명적인 뇌손상을 당할 위험이 40%나 감소하며, 부상확률은 70%, 사망확률은 40%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WHO(국제보건기구)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안전모, 어떠한 안전모를 써야할까?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며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사용기간이 4~5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한다. -안전모의 무게는 2kg이하여야 한다. -청력과 시각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부터 신체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2차적 생명 보호책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전모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운재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순경

독자제언

가정폭력 없는 가정의 달을 기대하며

가정폭력 범죄의 결과는 이혼을 하는 가정인 경우가 하연, 폭력의 정도에 따라 사인이 중한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이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자녀 등이 받는 상처는 오래 남아서 서로 간의 불신이 생기고 때로는 나도 폭력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 보라는 식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신고상담을 하면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원인진단과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폭력의 반복이 장기화되어 피해자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엔 폭력가정에 안주하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째,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를 기억해 두어 도움을 요청한다. 둘째,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폭력을 가한 사람의 위험 때문에 말하기가 두렵다면 경찰관과 따로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된다. 셋째,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 등을 안내 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을 한다. 용기 내어 드러내지 않는다면 마음까지 망고 병든 채 하는 끝없는 폭력이 가정폭력이다. 더 이상 참지 말고, 감추지 말고 숨지도 말고 당신의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드러내야 한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적극 막아야 한다

새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철회될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가 지난 정부 때 공공연히 복안됐기에 각 지역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이 당한 피해는 더욱 심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1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며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지난 정부 때 수도권의 여아위원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도를 발의하고 나선 게 신경쓰였는데 이제 원칙대로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편법은 이제 없어야 마땅하다. 수도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려 했던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것들은 수도권의 배를 더 불러주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지금 수도권 기업들의 비협조로 지방 경제가 죽을 수고 있는 편이다. 수도권에 규제가 편법 때문에 풀리게 되면 그 어디고 광역 지자체의 경제가 고사될 게 뻔하다. 그래서 1천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에 비수도권 지역은 크게 얻어맞은 기본이었다. 규제 완화도 좌시할 대상이 아니라면 1천 기업 혜택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규제가 부당하다며 풀어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조금씩 막혀들더니 지금에 이르러 있는 실정이다. 본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고른 발전이 목적이 다. 만약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지역의 낙후는 가속화된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더욱 심할 터이다. 저번에 보도된 대로라면 고용 효과 7천 명 감소에 생산 효과 2조원 감소에 당해야 한다. 그것은 손해를 전부 감당할 수가 없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측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수순 밟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편이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강경해야 한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적극 막아야 한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한 것도 없으면서 이랬다저랬다 했던 지난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 마땅하다. 원칙대로 큰 틀에서 일하기 보다는 이리저리 휘둘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천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에 다른 것이 아니다. 새정부가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편법을 없애도록 전북도는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도내 농촌의 일손이 갈수록 줄고 있다. 언젠가 도내 모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손 부족 인원이 1만3천 명이다.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도내 농촌의 일손 부족 보고는 지난해의 보도를 생각해 나게 한다. 30년이 못돼 도내 10개 시군이 사라질 위기라는 거 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와 완주군을 빼놓고 다른 시군들이 그렇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내 농촌의 인구가 심각한 정도로 줄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 전북도는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고 있으니 일손이 부족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농촌 지역에 오래도록 계속됐다. 삼각농정의 목적도 농생명 산업의 목적도 농촌 살리기가 돼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농촌의 일손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촌을 위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창한 슬로건을 말했다. 그렇지만 도내 농촌의 현실은 그 슬로건대로 변모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양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 농촌 지역에 대한 상황 파악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귀농을 장려했지만 귀농을 망서리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도내에 20가구 미만의 마을이 1027곳이나 된다는 오래 전의 보도도 생각나는 지금이다. 지금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도에게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정직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